

女子大學의 特性

李 惠 星

(梨花女大 教育心理學科)

여성만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자대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남녀 공학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여자대학이 남녀 공학대학으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평등 사회에서의 여자대학의 존립 가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남녀 공학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여자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 고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여자대학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일은 어쩌면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성들의 고등교육은 여자대학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의 이러한 소박한 신념은 크게 두 가지 면에 기초

를 두고 있다.

첫째는 여성들은 여자대학에서 교육받으면서 그들의 지도력과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남녀 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부속된 듯한 위치에 머물러서 그들의 지도력이나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학마다 전체 학생들을 대변하는 총학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공학에는 여학생들만을 대변하는 여학생회가 따로 있고 이 여학생회를 지원해주는 여학생회가 따로 존재한다. 따라서 남녀 공학대학의 여학생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들의 지도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때때로 남녀 공학대학에서 뛰어난 지도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여학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위의 남학생이나 여학생들까지도 그를 탐탁히 여기지도 않고

비웃거나 질시하며 경원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시절에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던 여학생들이 남녀 공학대학에 가서는 고등학교 시절만큼 활발한 公的인 지도적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본인이 이런 면에 진실로 관심이 없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위의 여건 때문에 자신의 의욕을 억누르며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자대학의 경우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여자대학에서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남녀 공학대학에서보다는 쉽게 지도력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전문직 여성들 중에 여자대학 출신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의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의 경우에

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바드대학의 쿤드신 교수가 쓴 『여성과 성공』이라는 책에는 여성들 자신의 지도력과 창의력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자대학에서 교육받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쿤드신 교수가 계획해서 개최했던 ‘여성과 성공’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초대되었던 12명의 실력있는 성공한 여성 학자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여자대학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여자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력과 창의력을 구김없이 키우고 보존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에는 자기들보다 우수했던 동료들이 남녀 공학에 진학하고는 그 우수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남녀 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배당받기 힘든 지도적인 위치가 여자들만의 학교에서는 의당 여자들 차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있어서도 남녀 공학의 여학생보다는 여자대학의 여학생이 몇 배나 더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남녀 공학대학에서 여학생이 수석을 하여도 정작 진학이나 사회 진출의 문제에 부딪치면 남학생에게 그 기회의 양보를 권유받는 일은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할 더 계속하고 싶거나 사회에 진출하려는 의욕이 강한 여학생들일수

록 여자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나는 믿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기를 여학생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둘째로는 여성들은 여자대학에서 교육받으면서 그들의 정체성(identity)을 더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대학 생활은 성인 생활의 시작이며 자율적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다. 대학생으로서 성인으로서 불 것이나 또는 청소년으로서 불 것이나 하는 문제는 법적·사회제도적 또는 발달심리적 측면에 따라 약간의 이견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 대학생들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학생들도 자신들을 성인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성인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성인 생활의 시작이 대학 생활이라 하겠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생활은 타의에 의한 틀에 박힌 생활이라면 대학 생활은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선택한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일원 또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올바른 사고와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함양한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는 과정이 곧 대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남성 위

주의 울타리 안에서 나약한 여성임을 자각하기보다는 공평한 여건에서 여성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키우는 과정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여자대학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그동안 간혀 있던 잠재 능력을 적극적으로 계발하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 모델(role model)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경우 대학 교수가 그 역할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여자 교수가 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남녀 공학대학의 여학생들은 여자 교수를 역할 모델로 삼기 힘들겠지만 여자대학에는 여자 교수들이 많다. 자기가 선택한 전공 분야에서 기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위의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생활에 충실한 당당한 여성상을 여자대학에서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경험은 남녀 평등을 구호로만 외치며 관념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는 건강한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남녀 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남학생에게 의존하려는 태도와 여자니까 봐주겠지 하는 나태심이 여자대학에서는 잘 통하지 않기 때문

에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는 데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여자대학은 여성들만이 생활하는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폭 넓은 인간 관계를 갖거나 異性과의 스스럼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싫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할 만큼 유리한 점이 이 폐쇄되었다고 믿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여학생들만이 밀착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성으로서 더욱 세련되고 여성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지혜와 재치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여성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움이 자신들의 몸매, 옷 입는 센스, 교양, 취미, 윗 사람과 아랫 사람에 대한 예절, 더 나아가 생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 등을 예리하게 터득하는 것이다. 여자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실제 가정 생활을 경위바르고 기분 좋고 현명하게 영위하는 것을 자주 본다. 나는 이런 지혜는 여성들만의 부딪힘 속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성장한다고 믿는다. 물론 남녀 공학 출신 여성들이거나 여자대학 출신 여성이거나를 막론하고 개인 차는 있는 것이므로 지금 내가 열거한 특성들을 여자대학의 공으로만 돌

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독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여유 있는 이해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대학이 지니는 장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동창 관계이다. 여자대학 졸업생들이 친정 집처럼 찾아 오는 모교의 따뜻한 대접이 남녀 공학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남녀 공학에서는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교 기념일이나 총동창회 모임에서 여성 졸업생들의 존재를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남녀 공학대학의 여성 졸업생들의 모교에 대한 애착은 여자대학 졸업생들의 모교에 대한 애착이나 협동심에 비하면 지극히 미약하거나 거의 그런 감정조차도 가져지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감정은 남녀 공학대학 출신인 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또한 여자대학 졸업생이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따뜻한 배려가 여자대학에서는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남녀 공학대학의 여성 졸업생들의 경우엔 전혀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여자대학

이 지니는 장점으로서는 지극히 미미하고 유치한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당당하게 상승시키는 데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학당이 금년으로 개교 102주년을 맞았다.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 스크랜톤 부인에 의해 세워져 단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된 여성 신교육의 요람 이화학당은 이제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로 성장하여서 그 규모나 내용이 동양, 아니 세계 제일의 여성 고등교육 기관이 되었다. 이외에도 순전히 여성만을 위한 교육 기관은 우리나라에 중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전국적으로 천 백여 개에 이르며 매년 학사는 물론 수 많은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의 성실한 노력과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이제 는 남자·여자를 성별로 구분해서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훌륭하고 유용한가를 구차스럽게 주장하는 단계를 초월해서 여성이 건강하고 당당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학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